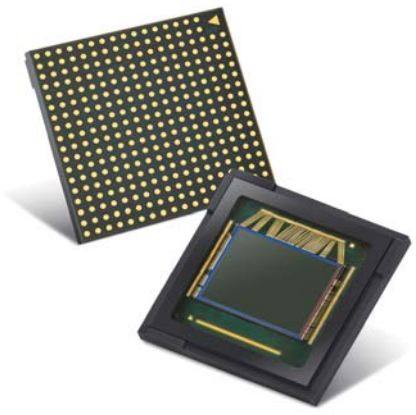
삼성전자, 모바일 이미지센서 '아이소셀 GN1' 출시

DSLR급 초고속 자동초점 1억 화소 수준 이미지 출력

듀얼 픽셀로 DSLR 수준 PDAF
전자식 이미지 흔들림 보정 기술
'테트라셀' 기술로 감도 극대화
갤럭시 노트 20+ 적용 전망



아이소셀 GN1. /삼성전자

삼성전자 이미지 센서가 디지털일안반사식(DSLR)카메라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이번엔 초점 속도를 대폭 축소했다. 중국 스마트폰을 시작으로 갤럭시 노트 20에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GN1'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달부터 양산을 진행 중이다.

핵심 기술은 '듀얼 픽셀'이다. 화소 1개에 포토 다이오드를 2개 배치하는 것으로, 아이소셀 GN1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듀얼 픽셀은 초고속 자동초점(AF) 기능을 가능케 한다. 사람이 양쪽 눈을 이용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좌우 포토 다이오드로 이미지를 검출하고 위상차를 계산해 피사체에 빠르게 초점을 맞추는 원리다. DSLR 수준 '위상 검출 자동 초점(PDAF)'을 구현할 수 있다.

아울러 2개의 포토다이오드에서 받아들이는 빛을 이용해 실제 화소보다 2배 가까운 이미지를 출력할 수도 있다. 아이소셀 GN1은 5000만화소 제품, 소프트웨어로 1억화소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감도도 극대화했다. 1.2㎛(마이크로미터) 기반으로 크기를 키웠을 뿐 아니라, 4개 픽셀을 하나로 합치는 '테트라셀' 기술도 적용했다. 어두운 곳에서는 1250만화소로 줄이는 대신 빛을 4배 더 받아들인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ISO 값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스마트 ISO'와 밝기와 명암을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실시간 HDR', 그리고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전자식 이미지 흔들림 보정(EIS)' 등 최신 기술도 함께 탑재했다.

삼성전자 시스템LSI 사업부 센서사업팀 박용인 부사장은 "아이소셀 GN1은 강화된 자동초점기능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밝고 선명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제품"이라며 "삼성전자는 지속적인 픽셀 기술 혁신으로 시장이 요구하는 차세대 고성능 · 다기능 이미지센서 개발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이소셀 GN1이 탑재될 제품은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단, 중국 현지 여론에 따르면 스마트폰 제조업체 비보가 아이소셀 GN1을 탑재한 제품을 준비 중이다.

그 밖에 오포나 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이 아이소셀 GN1을 탑재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차세대 갤럭시에도 새 제품이 활용될 수 있다. IT 관련 소식을 전하는 트위터리안 아이스 유니버스는 이날 갤럭시 노트 20+가 초점 보정을 위해 새 이미지 센서를 추가할 것으로 봤다. 기본적으로 1억800만화소인 아이소셀 HM1을 사용하긴 하지만, 보조적으로 아이소셀 GN1을 탑재할 수 있다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두산인프라코어 '컨셉트-엑스' 시연회 모습.

'클라우드 플랫폼' 건설 접목 공사비용·시간 ⬇ 생산성 ⬆

두산인프라코어 '사이트클라우드'
최적화된 작업계획·현장작업 지원
분산된 여러작업 단일 플랫폼 관리
시공 측량·토공량 계산 1~2일 완료

두산인프라코어가 클라우드 플랫폼을 적용 건설 현장의 다양한 작업을 통합 관리해 생산성을 높여주는 스마트 건설 솔루션 '사이트클라우드'를 선보였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시공 측량과 토공량 계산을 1~2일 안에 끝냄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건설 솔루션 '사이트클라우드'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이트클라우드는 지난해 두산인프라코어가 세계 최초로 시연에 성공한 건설현장 무인·자동화 종합관제 솔루션 '컨셉트-엑스'의 상용화 첫 단계다. 이로써 두산인프라코어는 건설기계장비 제조, 판매를 넘어서 '건설현장 관리'까지 사업분야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사이트클라우드는 3차원 드론 측량과 토공 물량 계산, 시공 계획 수립 등을 전용 클라우드 플랫폼에 접목해 최적의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현장 작업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토공 현장 종합 관리 솔루션이다. 측량, 지형 분석, 장비 운용, 시공 관리 등 각각 분산된 여러 작업을 단일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다. 그만큼 비용과 시간이 줄고, 작업 정확도가 높아져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이 솔루션을 활용하면 토공현장 정보를 3차원으로 디지털화하고 암층 분석까지 할 수 있다. 또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시공사와 발주처 등 공사 참여주체 간 협업을 통한 작업 진도 관리가 용이하다. 가파른 비탈과 절벽 지형에서도 고도화된 드론 측량으로 정확한 작업 물량을 산출할 수 있다.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빠르고 정밀하게 분석해 전통적 방식으로 길게는 2주 가량 걸리던 시공 측량과 토공량 계산이 1~2일이면 가능해진다.

사이트클라우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인프라 시설 등 국내외 10여 곳의 건설현장에서 기술 검증을 마쳤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향후 5G 통신 기술과 텔레매틱스 등을 이용해 사이트클라우드의 활용 범위를 대규모 건설장비 운용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국내 시장 출시에 이어, 해외시장 공략도 추진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비금융 데이터 신용평가 활용… 중소셀러 대출 문턱 ⬇

SKT-11번가-현대캐피탈
'11번가 이커머스 팩토링' 서비스
이커머스 소상공인 대상 혁신금융

SK텔레콤은 11번가, 현대캐피탈과 협력해 비금융 데이터 기반 신용 평가를 활용한 11번가 중소 셀러 대상 대출 상품 '11번가 이커머스 팩토링'을 20일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11번가 이커머스 팩토링'은 지난해 10월 SK텔레콤이 이통사 최초로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통과 후 출시한 첫번째 이커머스 소상공인 대상 혁신금융서비스다.

SK텔레콤, 11번가, 현대캐피탈은 이동통신, 이커머스 등 비금융 데이터를 신용 평가에 활용, 중소 셀러들에게 대출한도 상향, 이자 절감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기획했다. 이번 서비스 출시를 통해 11번가 중소 셀러 최대 4만명이 금융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모델이 11번가 중소 셀러 대상 대출 상품 '11번가 이커머스 팩토링'을 이용하고 있다. /SK텔레콤

영세한 형태로 운영 되는 경우가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우 매출 규모가 작고 담보와 신용도가 부족해 제도권 금융사를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온라인 오픈마켓 등록 셀러 중 신용 등급이 1~2등급에 해당하는 비중은 약 35%에 불과하다. 신용 등급이 높아도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긴급 자금 융통이 쉽지 않다.

이번 '11번가 이커머스 팩토링'을 통해 11번가 중소 셀러들은 매출 규모 등의 검토를 거쳐 기존 대출과 별개로 최대 3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1번가 이커머스 팩토링' 이용을 원하는 중소 셀러는 11번가 홈페이지에서 셀러회원 인증 후 안내에 따라 현대캐피탈 신청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나인 기자 silkni@

삼성전자, 멤버십 등급 개편… '스타' 신설

회원 구분 4단계로 확대 … 혜택 강화

삼성전자가 멤버십 고객 혜택을 한층 강화한다.

삼성전자는 19일 '삼성전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새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멤버십은 제품 구매 금액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무상 서비스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혜택을 주는 고객 케어 프로그램이다. 2009년 처음 도입돼 약 2800만명이 가입했다.

삼성전자는 '스타' 등급을 신설하며 회원 구분을 4단계로 확대했다. 종전에는 로열블루와 프레스티지 및 일반회원만 운영했었다. 앞으로는 2년간 구매 고객 300만원 이상 또는 구매 횟수 3회 이상이었던 고객 70여만명에도 스타 등급을 부여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고객들은 멤버십 등급에 따라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나 프로축구 수원 삼성 블루윙즈 홈경기, 리움·호암 미술관 입장 혜택과 함께, 프리미엄 지식 콘텐츠 '세리 시이오' 무료 이용권 등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멤버십에 '스타' 등급을 신설하는 등 풍성한 혜택을 마련했다. /삼성전자

멤버십 개편을 맞아 다음달 17일까지 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한 '반짝반짝 멤버십 파티' 퀴즈 이벤트도 실시한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블루 패키지' 서비스를 새로 추가해 스포츠와 문화, 여가 생활 및 콘텐츠 등 제휴 혜택도 마련했다.

혼수를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혼수 멤버십 회원'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마련됐다. 500만원 이상 가전 제품을 구매하면 TV와 냉장고, 에어컨 등 필수 가전을 비롯해 에어드레서와 공기청정기 등까지 9개 품목 무상 서비스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해 준다. /김재웅 기자

LIG넥스원, 드론방호시스템 실증 추진

테러·군사 산업 스파이 등 위협 보호

LIG넥스원이 드론으로 테러에 맞선다.

LIG넥스원은 19일 항공안전기술원과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 분야 대표사업자로 선정된 성과다.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은 국내 드론 관련 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다. 드론 관련 국내기술을 조기 상용화하고 활용도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와 공공부문이 연계해 드론 방호시스템(장비) 성능을 실증하고 제도과 규제 개선 과제 발굴까지를 목표로 한다.

LIG넥스원은 올해 12월까지 수산이앤에스, 디티앤씨, 넵코어스, 아고스, 삼정솔루션 등 5개 기업과 '드론 방호시스템'을 시범 운용하는 실증 사업에 나선다.

드론 방호 시스템은 미확인 드론을 조기에 탐지하고, 식별·추적 후 무력화함으로써 국내 주요 시설을 테러 및 군사·산업 스파이 등의 위협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LIG넥스원은 드론탐지 레이다와 RF(주파수) 스캐너, EO/IR(전자광학/적외선) 카메라, 근거리/원거리 재머(교란장비) 등을 수요처의 운영 환경에 최적화되도록 '맞춤형 통합 솔루션'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김재웅 기자